

서울지역 '이동 중기청' 운영

서울지방중소기업청은 최근 서울신기술창업지원센터에서 각종 애로상담 활동을 벌인 것을 시작으로 '이동 중기청' 을 통해 찾아가는 현장 밀착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상담 지역은 중소기업이 밀집되어 있는 B센터, 아파트형공장을 우선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중에 총 10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서울중기청은 상담분야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 유관기관의 전문가를 현장에 파견, 업체별 맞춤형상담을 실시해 기업의 애로사항이 해소되도록 하는 한편 현장에서 해소가 어려운 사항은 기업 환경 개선 과제로 선정해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동중기청 개최를 희망하는 중소기업 밀집지역 관계자는 서울지방중소기업청 경영지원과(02-509-6742)로 문의하면 된다.

중소 애로해소 '두꺼비 봉사단' 출범

산업자원부는 지난 2004년부터 운영한 '중소기업 현장체험단' 을 '중소기업 애로해소 지원단' (일명 두꺼비 봉사단)으로 체제를 바꿔 운영에 들어갔다고 최근 밝혔다. 산자부 등 21개 기관, 126명으로 구성된 지원단은 산자부,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진흥공단, 산업단지공단 등 10개 유관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접수한 뒤 이를 규제개혁위원회와 기업애로조정심의회 등을 통해 해결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또 희망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현장에 나가 각종 애로사항을 해결해주는 봉사단원을 파견한다.

산자부 관계자는 "두꺼비 봉사단은 동화 '공쥐뿔쥐' 에서 두꺼비가 어려움에 처한 공쥐를 도와준데서 착안한 이름"이라며 "기존 중소기업 현장체험단의 문제점을 개선, 기업들의 실질적인 애로를 해소하려는 것" 이라고 밝혔다.

"수출 중소기업 금융지원 강화"

중소기업을 위해 환변동보험 지원 규모가 현재의 2배로 늘어나고 수출할 때 대금을 받을 수 없는 위험을 담보하는 수출보험 부보율이 100%로 상향 조정된다. 김영주 산업자원부 장관은 최근 서울 무역센터에서 주요 수출산업단체장, 수출업체 대표 등 26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수출업체 간담회를 주재하면서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금융·보험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 등 세계경기의 둔화 가능성, 국제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환율의 변동성 확대, 국제유가 재상승 등 수출여건이 기대만큼 낙관적이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올해 수출 전망 달성을 위해서는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올해 우리나라 수출 목표는 3600억달러이고 무역수지 흑자 목표는 170억달러. 산자부는 이에 따라 엔화 등 기타 통화에 대한 환변동보험 지원 규모를 현재의 업체당 연간 100만원에서 연간 200만원으로 확대하고 수출보험 부보율도 현행 97.5%에서 100%로 올려 수출할 때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위험을 전부 담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올 제조업 설비투자 큰 폭 둔화

올해 국내 제조업체들의 설비투자가 지난해에 비해 크게 둔화될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산업은행이 국내 83개 업종의 3600여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2007년 설비투자계획' 에 따르면, 제조업의 설비투자는 0.8% 증가하는데 그쳐 지난해 증가율(5.8%)에 비해 크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석유정제, 음식료 등 비IT산업 투자가 전년 대비 12.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 반면 반도체, LCD 등 IT산업은 전년대비 14.6%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제조업 총 투자에서 IT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42.8%에서 올해 36.2%로 하락할 전망이다.

제조업 가운데 대기업 설비투자는 1.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지난해 11.1% 증가율을 보였던 중소기업의 설비투자는 올해 2.0% 감소할 것으로 파악됐다. 또 수출기업은 세계경제 둔화 전망에 따른 영향으로 1.6% 감소할 것으로 나타난 반면 내수기업은 5.9% 증가해 내수기업이 설비투자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됐다.

중소기업 '재택근무제' 급증

중소기업 10곳 가운데 1곳은 '재택근무제' 를 운영 중이며 대부분 기업들은 경비절감과 우수인력 확보 차원에서 재택근무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 리크루팅 업체 잡코리아(www.jobkorea.co.kr)가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 819개사를 대상으로 '재택근무 운영현황' 에 대해 조사한 결과, 12.8%의 기업이 현재 재택근무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답했다.

재택근무제도 도입 이유(복수응답)는 인력운영의 경비절감 차원에서 도입했다는 기업이 53.3%로 절반이 넘었으며, 다음으로는 우수인력 확보(32.4%), 사무공간 부족(26.7%) 등의 순이었다.

이들 기업의 재택근무 인력이 소속된 부서(복수응답)는 '기획·홍보'(44.8%), '디자인'(39.0%) 부서가 상대적으로 많았고, 이외에는 △IT시스템관리(20.0%) △기타(학습지교사·웹서칭 등)(20.0%) △고객상담(17.1%)의 순으로 조사됐다. 한편 재택근무 인력의 고용형태에 대한 조사결과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기업은 26.7%에 불과한 반면 비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기업이 60.0%로 2배이상 높았다.

“기업 체감경기는 아직도 겨울”

기업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아직도 ‘겨울’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절반 가량의 기업들이 주력제품의 생산성 하락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조사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 7대 특별·광역시 소재 제조업체 307개사를 대상으로 한 ‘최근 기업의 체감경기 현황과 정책과제’ 조사결과 “현재의 경기상황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이 여전히 좋지 않다”면서 “내수축진과 불확실성의 제거 등 체감경기 회복을 위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의 경기상황을 계절로 표현하면 ‘겨울’이라는 응답이 65.1%로 가장 많았고 ‘가을’(20.2%), ‘봄’(14.0%)이 뒤를 이었으며 성수기를 의미하는 ‘여름’이라는 응답은 0.7%에 그쳤다. 구체적인 경기상황에 대해서는 ‘침체국면’이라고 밝힌 기업이 76.5%, ‘회복후 재침체’라고 답한 기업이 9.8%였으며 ‘회복국면’이라는 기업은 13.7%에 불과했다.

경기가 침체된 이유로는 ‘내수부진’(42.9%)이 가장 많이 꼽혔고 ‘경제양극화’(24.9%), ‘채산성 악화’(17.2%), ‘부동산·건설경기 위축’(13.0%) 등 순이었다.

중소 인사담당자 최대 고민 ‘직원 이직’

중소기업 인사담당자 2명 중 1명은 공채시즌이 돌아오면 직원들이 이직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온라인 취업 사이트 사람인(www.saramin.co.kr)에 따르면, 스카우트 코리아와 함께 중소기업 인사담당자 653명을 대상으로 ‘공채시즌이면 직원들이 이직할까봐 두려움을 느끼는가’란 질문에 48.2%가 ‘그렇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의 이직이 회사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전체 응답자의 56.2%가 ‘조직 업무 분위기를 깨뜨린다’고 답했고, ‘생산성 하락’(26.8%), ‘이직 도미노현상’(8.7%)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직원들의 이직을 방지하기 위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전체 조사 대상자의 78.3%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현재 이직방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은 가장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묻는 질문(복수응답)에는 ‘인센티브제 시행’을 60.7%로 가장 높게 꼽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장기근속 포상제’(49.3%), ‘사원 기념일 챙기기’(42.0%), ‘경영진과 정기적 만남 또는 회의’(33.3%) 등 순으로 답했다.

기업애로 현장에서 해결한다

경상북도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직접 찾아가 해결해 주는 ‘기업사랑 플러스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플러스 서비스는 기업체가 필요로 하는 맞춤형으로 ‘단체장 기업현장 방문’, ‘찾아가서

하는 지원’, ‘기업전용 메일 운영’ 등이 주요 내용이다.

도는 우수기업이나 현안이 있는 기업에 대해 도지사가 월 1차례 직접 방문해 애로사항을 듣고 신속한 해결 방안을 찾는 한편 기업인과 직원들의 사기를 높일 계획이다. 또 도청 기업지원팀 모든 직원이 도내 중소기업을 지역·산업단지·업종별로 묶어 매주 주기적으로 직접 방문, 상담과 설문 조사를 통해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업체별로 차별화 한 지원대책을 강구기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기업방문 활동 내용과 현장 해결이 곤란한 규정·제도 등을 종합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시책개발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공장 부지난 해소에 적극 노력”

부산시는 최근 허남식 부산시장을 비롯한 시 주요간부와 기계, 조선, 자동차부품, 신발, 금속 등 부산지역 주요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 및 대표기업인, 유관 기관장, 경제전문가 등 37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시 주요간부와 지역 기업인들이 머리를 맞대고 지역 경제 현황을 솔직하게 진단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허남식 시장은 “부산시가 전국에서 제일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평가를 받기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날로 증가하는 있는 공장부지 요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산업단지 조성에 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부산의 주요 수출품목인 조선, 기계, 자동차 등을 비롯해 신발, 금속, 금형, 염색 등 9개 중소기업협동조합들은 △중소기업 현장 애로사항 해소 △협동화단지 조성 △중소기업진흥자금 지원 △신발산업육성 등 17건의 건의사항을 제시하고 각 업종별 사업비전과 전략, 그리고 사업전망에 대해 논의했다.

여성기업 지원 대폭 늘어난다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이 올해 대폭 확대된다. 중소기업청은 올해 여성기업활동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여성기업에 81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고 최근 밝혔다. 중기청은 여성의 창업지원에 23억원, 여성기업의 경쟁력 강화 사업에 20억원, 여성기업중합지원센터 설치에 38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기청이 발표한 기본계획에 따르면 올해 여성의 창업촉진을 위해 이벤트플래너, 토포어리 등 여성의 특성에 맞는 분야의 창업교육, 이랜서 양성교육, 창업보육실, 멘토링 제도 등을 운영한다.

또 여성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해서 여성CEO혁신 MBA과정 운영, 경영혁신연수·포럼을 통해 여성경제인의 경영능력을 향상시키고, 여성벤처제품 공동브랜드홍보, 여성기업제품전용매장운영, 해외전시회·박람회 참가지원 등 여성기업의 판로확대 사업을 추진한다.